

# 2주만에 퇴장 '인랑' 히비 엇갈린 감독들

연상호·이준익·추창민 감독 흥행 참패 vs 박훈정·김용화 감독 재기 성공

올여름 기대작 중 하나로 꼽혔던 영화 '인랑'이 개봉 2주도 못 돼 박스오피스 퇴장을 앞섰다.

지난달 25일 개봉 이래 이 영화를 본 관객은 약 88만 명. 총 제작비 230억 원이 들어간 '인랑'의 애초 손익분기점은 600만 명이다. 넷플릭스에 판권이 팔려 손익분기점은 그보다 낮아졌지만, 현 추세라면 극장 관객만으로는 제작비 회수가 불가능하다.

'인랑'은 '장르의 마술사'라 불리는 김지운 감독의 신작이다. 2년 전 750만 명을 동원한 '밀정' (2016)을 비롯해 '악마를 보았다' (2010),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2008), '달콤한 인생' (2005) 등 어떤 장르든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며 관객과 호흡해왔던 감독이기에 예상치 못한 빠른 퇴장은 아쉬움을 남긴다.

'인랑'은 사실 제작단계서부터 우려와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일본 애니메이션 원작 자체가 무겁고 암울한 세계관과 색채를 지닌 탓이다. 대중적이기보다 마니아층이 열광한 작품이었다. 그래도 '민고 보는' 김지운 감독이기에 이번에도 작품성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라는 기대가 컸다. 강동원·한효주·정우성 등 인기배우들이 가세한 점도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랑'은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강화북이나 지하수로 등 원작에 충실한 비주얼은 돋보였으나, 스토리 전개에 허술함을 노출했다.

SF와 멜로, 액션, 누아르 등 다양한 장르를 섞은 시도는 참신했지만, 영화를 볼 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이도 저도 아닌 작품으로 보이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인간병기 입증경(강동원)의 심리적 변화를 이끄는 동기로 이윤희(한효주)와 펠로를 강조했으나, 세심하게 그



'역력'



'마녀'

리지는 못했다. '펠로가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온 이유다.

한 영화계 인사는 "김지운 감독 영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영화 외적으로는 대진운도 좋지 않았다. '인랑'은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과 같은 날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제대로 겨뤄보지도 못하고 참패했다. 이를 만회할 새도 없이 일주일 뒤에는 '신과함께-인

과연'에 압도당하며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충무로에는 '흥행은 신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다. 흥행 결과를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올해는 김지운 감독뿐 아니라 여러 흥행 감독들이 고전했다.

장편 데뷔작 '부산행'으로 1,000만 관객 대열에 오른 연상호 감독은 '소포모어 징크스' (2년차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했다.

올 초 그가 선보인 두 번째 장편 '역력'은 철거촌을 배경으로 한 슈퍼히어로 코미디로, 참신한 소재로 주목받았지만 99만 명을 동원하는 데 그쳤다.

'광해, 왕이 된 남자' (2012)로 1,200만 명을 불러모은 추창민 감독은 지난 3월 '7년의 밤'으로 흥행의 쓴맛을 봤다. 두 아버지의 비틀린 부성을 그린 작품으로, 정유정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가 원작이다. 추 감독은 "어차피 (관객을) 짓누르는 영화로, 그 짓누름이 그래도 흥미롭다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짓누림은 불편함으로 이어졌고, 결국 관객의 외면을 받았다.

'동주' (2015), '박열' (2016)로 연타석 안타를 쳤던 이준익 감독은 '변신' (49만 명)에서 흥행 행진이 멈췄다. 이 감독은 한 무명 래퍼를 통해 젊은 세대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싶어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감성 코드를 제대로 읽지는 못했다. 영화 주 타깃층인 20대 사이에선 '촌스럽고 올드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흥행 실패를 딛고 재기에 성공한 감독들도 있다.

'마녀'의 박훈정 감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여름 선보인 '브이아이피'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 장면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흥행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선보인 '마녀'는 독보적인 여성 캐릭터와 탄탄한 스토리로 호평을 받으며 손익분기점(230만 명)을 넘어선 319만 명을 불러모았다.

'신과함께' 시리즈로 한국형 프랜차이즈 영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김용화 감독도 부침을 겪었다. 순제작비 225억 원이 투입된 '미스터 고' (2013)가 흥행에 참패하면서 오랫동안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고, 그때의 실패 경험은 대중의 마음을 읽는 데 중요한 자양분이 됐다. /연합뉴스



## 현아-이던 "교제한 지 2년 됐어요"

열애설 인정, 프로젝트 그룹 트리플 H 활동

"저희를 응원해준 팬들에게만은 솔직하고 싶어요."

혼성 프로젝트 그룹 트리플 H로 활동 중인 가수 현아(26)와 보이그룹 펜타곤의 이던(본명 김효중·24)이 "교제한 지 2년 됐다"며 두 사람이 연인 사이라고 밝혔다.

당일 오전 열애설이 났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꼬리표가 붙을 것도 없지만 무대에서 팬들의 눈을 바라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같았다"며 "그래서 사랑해주고 지켜봐 주는 많은 팬에게만은 솔직하게 말하고 즐겁고 당당하게 무대에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현아가 2007년 데뷔 이래 공개 연애를 하기는 처음으로 둘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교제 사실을 몰랐는지 이날 오전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소속사인 두 사람이 알고 지내기는 3년 전이다. 2015년 연습생이던 이던이 현아의 '잘 나가서 그래'에서 펠파트를 맡은 비투비 정일훈을 대신해 무대에 오르면서 가까워졌다.

두 사람이 부쩍 가까워진 것은 현아의

앨범에 이던이 참여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면서다.

현아는 "함께 음악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같이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앨범 크레딧에는 안 나와 있어도 이던이가 내 앨범에 세심하게 도와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공개 연애를 결심하게 된 대해 이던은 "혹시 팀에 영향을 미칠까 미안해서 멤버들에게도 먼저 얘기했다. 팬들에게도 너무 미안한데, 열심히 음악 활동하는 모습으로 꼭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2007년 원더걸스로 데뷔한 현아는 2009년부터 포미닛으로 활동하며 솔로 앨범도 냈으며 2016년 포미닛 해체 이후 솔로 가수로 전향했다.

2016년 펜타곤으로 데뷔한 이던은 후이와 함께 작사, 작곡을 하는 실력과 멤버로 꼽힌다.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 2의 미션곡 '네버'(Never)의 작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펜타곤의 후이와 함께 지난해 프로젝트 그룹 트리플 H를 결성했으며 지난달 두 번째 앨범을 내고 타이틀곡 '레트로 퓨처'(RETRO FUTURE)로 활동 중이다.

## 개봉 2주 '미션 임파서블6' 북미 박스오피스 장악했다

국내 관객 500만 돌파

했다.

'미션 임파서블 6'은 개봉 첫 주말에 비해 좌석 점유율이 43%만 떨어져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2015년 전작(5편)인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을 능가하는 추세다.

주인공 에단 헛트 역의 톰 크루즈는 로프로 허리를 묶은 채 바닥에 닿을 정도로 아슬아슬한 높이까지 추락해 공중에 매달리는 '로프 액션'과 고층 건물·절벽을 맨손으로 기어오르는 '맨손 등반 액션'으로 몸을 사리지 않는 스타트 연연을 펼쳤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먼저 개봉해 개봉 11일째 관객 500만을 돌파하는 등 흥행 1위를 질주하고 있다.

톰 크루즈가 50대 부상투혼을 펼치며 열연한 '미션 임파서블 6(폴아웃)'이 개봉 2주째에도 식지 않는 열기로 북미 박스오피스를 장악했다.

이번 작품뿐만 아니라 '도깨비'에서도 함께한 두 사람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나만 닮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다'며 안도(?)하는 모양새이다.

조우진은 또 낙천적이고 인정 많은 역할 관수를 통해 다소 무거운 스토리 속 '숨통'을 트는 역할도 한다.

조우진은 소속사 유넷컴퍼니를 통해 "폭염 속에서도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시청자의 좋은 관심과 반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동매(유연석)의 결을 지키는 호타루 역의 김용지(27)는 첫 드라마 데뷔부터 독특한 마스크로 시청자의 관심을

## 가수 슈, 도박자금 못 갚아 검찰 수사

2명으로부터 6억원... "혐의 인정, 도박 무서움 절감"

1세대 아이돌인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7)가 도박자금으로 수익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에 따르면 슈는 올해 6월 서울 광진구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으로부터 각각 3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돈을 빌려준 2명이 슈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슈가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도박 혐의까

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고, 슈는 일본 국적이 있어 출입이 가능했다.

그는 S.E.S로 함께 활동한 유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의심받는 것을 보고 실명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슈는 "지인과 휴식을 위해 찾은 호텔에서 우연히 카지노 업장에 가게 됐다.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서 카지노 업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당시 처음 알았을 정도로 도박·카지노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호기심에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 룰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6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빚진 건 맞지만, 전액을 도박 자금으로 써버린 건 아니다"라며 "개인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빌린 돈도 포함된 액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박이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절감한다"며 "빌린 돈은 꼭 변제하고 다시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된다"고 말했다.

1997년 S.E.S로 데뷔한 슈는 2002년 팀이 해체되기까지 국민요정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해체 뒤에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다.

2010년 농구선수 임효성과 결혼해 세 자녀를 낳았으며, 2016년 SBS TV 육아 프로그램 '오! 마이 베이비'에서 가정적인 모습으로 인기를 끌었다.

## '미스터 션샤인' 또 다른 주인공 '명품 조연'

함안택·쌍둥이·타로 점성술사 감초 역할 특출

김은숙 작가와 이은복 PD의 신작으로 스토리는 물론 PPL(간접광고) 하나까지 화제가 되는 tvN 주말극 '미스터 션샤인'의 또 다른 주인공은 '명품 조연'들이다.

주인공 5인방이 큰 줄거리를 이끌어 간다면 조연들은 틈새를 채우면서 극의 강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조연 중에는 중견 배우가 많아 무게감 조 절에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여준다.

애신(김태리 분) 얘기씨의 유모 함안택으로 분한 이정은(48)은 데뷔 25년 차 연극배우답게 극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미 2013년부터 수없이 많은

드라마에 출연한 그이지만 이번에는 특히 '서브 여주인공'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준다.

누구보다 얘기씨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를 흰기 꿰뚫기에 할 수 있는 잔소리와 농담들, 행랑아범(신정근)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준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수행비서가 아니라 밤마다 진일파를 차단하려 다니는 얘기씨를 보필하는 역할로서 코믹과 진지함을 자연스럽게 오간다.

이정은 소속사 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4일 "배우가 함안택 연기를 위해



쌍둥이로 오해 받는 일식이 역 김병철(왼)·임관수 역 조우진.

실제 경남 함안 사투리 선생님을 모시고 연습도 했다. 대본 자체에 워낙 사투리가 맛깔나게 적혀있기도 하다"며 "PD뿐만 아니라 김태리, 신정근과 워낙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 팀워크를 시청자들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

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가 개화기가 배경인 작품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시청자가 볼 때도 재밌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졸지에 쌍둥이"가 된 일식이 역 김병

철(44)과 임관수 역 조우진(39) 역시 '미스터 션샤인'에서 빠질 수 없는 캐릭터들이다. 극 중 인물들이 끊임없이 둘의 얼굴을 헛갈리자 당사자들도 이제는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짓는 데서 웃음을 유발한다.

이번 작품뿐만 아니라 '도깨비'에서도 함께한 두 사람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나만 닮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다'며 안도(?)하는 모양새이다.

조우진은 또 낙천적이고 인정 많은 역할 관수를 통해 다소 무거운 스토리 속 '숨통'을 트는 역할도 한다.

조우진은 소속사 유넷컴퍼니를 통해 "폭염 속에서도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시청자의 좋은 관심과 반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동매(유연석)의 결을 지키는 호타루 역의 김용지(27)는 첫 드라마 데뷔부터 독특한 마스크로 시청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일본 전통복장이 너무 잘 어울린 덕분인지 "진짜 일본인 배우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

타로 점성술사인 호타루 역에 맞게 말 한마디 없이도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김용지는 원래 모델 출신이다. 김용지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광고, 화보, 뮤직비디오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처음 정극에 도전하게 됐는데 반응이 좋아 본인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잘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배우들의 열연 속에 드라마 역시 점점 자리를 잡아간다.

지난달 29일 방송한 8회에서 시청률(닐슨코리아 유료가구) 12.3%를 찍은 '미스터 션샤인'은 중반부를 향해 가면서 주인공 5인방 간 감정과 구도가 명료해졌고, 러브스토리뿐만 아니라 시대의 비극과 얼굴 없는 의병들의 활동상에도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이야기가 훨씬 풍성해졌다는 평이다.